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3월

발행일 : 2025년 2월 28일

KOTRA VIETNAM BUSINESS NEWS



-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2
- ✓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해외시장뉴스 17
- ✓ <팀코리아협의체 동정>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VKIST,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 협업 기반 마련 18
- ✓ <기업탐방>비나텍 19
- ✓ <법률>휴업 및 프로젝트 일시 중단.....전현우 변호사 22
- ✓ <회계>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2탄.....엄진용 회계사 23
-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디엔비엔성> 25
- 베트남 바이오의료 시장 진출 가이드북.....
- ✓ <이달의보고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맞춤형 정보조사..... 31
- 2025년 AIOT서비스·제품 및 기업편람.....
- ✓ <이달의 전시회> 2025 베트남 호치민 국제 가공,포장전시회..... 32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33
-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38



문의처

편집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저작권자©KOTRA >



베트남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 5G·AI·핀테크 등 성장 기회 확대

- 베트남, 디지털 전환 핵심 과제 선정... 법·제도·인프라 정비 중
- 전자상거래·핀테크·스마트시티 등 분야 투자 기회 확대
- 규제 대비는 필수,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PPP 참여 등 고려 가능

베트남의 디지털 전환 및 기술 발전 현황

디지털경제: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국제무역청(ITA)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시장이 2025년까지 약 450억 달러, 2030년에는 900억~2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GDP 대비 12% 이상인 디지털 경제 비중은 ASEAN 지역에서 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이어 높은 편으로 평가했다. 한편, 현지의 업체들이 기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도 베트남이 대규모 ICT 제품 및 서비스를 수입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Bain & Company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는 CAGR 19%를 기록했는데, 이처럼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분야는 여타 ASEAN 국가들보다 성장세가 빠르며 시장 잠재력이 높은 부문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및 5G 인프라: 베트남의 인터넷 인프라 또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베트남의 유선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159.32Mbps로 세계 35위, ASEAN 역내 3위를 기록했다.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86.96Mbps로 세계 37위, ASEAN 역내 3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1월 기준, 베트남에서 상용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사는 Viettel과 Vina Phone 두 곳 뿐이다. Viettel의 경우 베트남에서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6500개 이상의 기지국을 운영하며 전국 인구의 25%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ICT 및 모바일 기반 혁신을 통한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100Mbps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2030년까지 전국 인구의 99%가 5G 네트워크를 이용 가능하게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전자상거래는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 전체 가치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결제 및 금융 서비스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간편결제, 전자지갑, 선구매 후결제(BNPL) 등 핀테크 서비스가 전자상거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베트남의 핀테크 산업은 급격히 확대돼, 베트남 중앙은행(SBV)에 따르면 2010년 10개에 불과했던 핀테크 기업 수는 2023년 187개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전자정부: 베트남은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Decision no.749/2020/QĐ-TTg)의 일환으로 전자정부 도입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유엔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순위를 상위 70위 이내로, 2030년까지는 상위 50위 이내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은 2024년 EGD에서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71위를 기록해 2022년 대비 15단계 상승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11개국 중 5위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EGD의 '매우 높은 수준(Very High Level)' 그룹에 포함됐다.

디지털 전환 관련 주요 투자·협력 기회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 투자 협력 및 기회 요인>

분야	기회 요인	주요 프로젝트 협력 가능 기업
통신 및 5G 구축	베트남은 2025년까지 전국적인 5G 네트워크 구축, 2030년까지 인구의 99%를 커버하는 목표를 설정. 현지 통신사와 협력해 5G 인프라, IoT 솔루션을 공급할 기회가 있음	주요 협력 기업: Viettel, VNPT, MobiFone
스마트시티 인프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등의 스마트시티 개발로 IoT 기반 교통 관리, 스마트 유틸리티, 공공 안전 시스템 등 첨단 기술 솔루션 수요 증가	주요 프로젝트: 하노이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프로젝트, 다낭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센터 시장	2024년 7월부터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데이터 서비스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100% 소유를 허용. 이는 클라우드 및 데이터 인프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	주요 협력 기업: VNPT, CMC Telecom, Viettel IDC, FPT Telecom, VNG Corporation
국제 금융센터 개발	베트남 정부는 2025년까지 호치민과 다낭에 국제 금융센터(IFC)를 설립해 지역 및 글로벌 금융 허브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핀테크, AI, 디지털 인프라 기업에 투자 및 협력 기회 제공	주요 프로젝트: 호치민 IFC, 다낭 IFC
디지털 결제 솔루션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쇼핑 확대와 함께 디지털 결제, 특히 BNPL(선구매 후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현재 시장은 초기 단계로, 외국 금융 기업 및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 기회 존재	주요 협력 기업: Fundii, Momo, Timo

[자료: 현지 언론,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시사점 및 진출전략

베트남은 ‘2025년까지의 국가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2030년 비전)’ 및 ‘2025년 디지털 인프라 전략’과 같은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지역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G, AI, IoT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산업 전반에 걸쳐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디지털 인프라, AI 응용 기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Viettel은 “베트남의 디지털 경제에서 외국 기업들이 5G, AI, 클라우드 컴퓨팅, IoT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과 제품을 제공할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디지털 전환 및 인프라 확장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해외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할 여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규제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며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민간 협력(PPP)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시장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장기적인 성공의 핵심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낭, 베트남 최초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향후 전망

- 다낭 자유무역지대, 빠르면 2025년부터 시범운영 시작
- 향후 다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자 베트남 자유무역지대 도입 시발점 기대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 배경 및 의의

다낭시는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의 인도차이나 반도 4개국을 가로지르는 동서경제회랑(EWEC)이 동쪽 끝에서 태평양과 만나는 종착지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을 남북으로 잇는 1번 국도와 교차하는 곳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낭시는 아세안의 주요 물류 허브로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다낭시 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은 관광 및 서비스업이며 제조업 및 물류 관련 인프라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경제규모의 68% 이상이 관광을 포함한 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 지속적이고 탄탄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 실제 코로나19로 모든 관광 및 관련 서비스업이 중단된 몇년간 다낭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으며 2023년 국제 항공 노선 복구와 함께 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다낭시 경제는 지역경제성장률(GRDP)은 전년대비 2.38% 성장하며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와 다낭시는 지역의 경제성장에 있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고, 남북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부지방의 산업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게 되었다. 다낭은 베트남에서 최초로 승인된 자유무역지대 설립 사례이다. 금번 조치는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무역과 서비스 개발, 중부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을 촉진 및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 추진 현황

2024년 6월 26일 베트남 정부 결의안 제1088/136/QH2024호가 통과됨에 따라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응우옌 호아 빈 베트남 부총리는 결정문 제15/QD-TTg에 최종 서명하여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계획안의 수립을 다낭시 인민위원회에 할당하였고, 해당 계획은 2025년 3월까지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최종 보고될 예정이다. 현재 다낭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령들을 개정 중에 있다. 주요 관련 법령으로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령 개정으로 자유무역지대의 지정과 운영에 필수적인 법적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낭시 정부는 자유무역지대 구역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다낭시 건설부는 물류, 생산, 상업 및 서비스, 복합기능으로 분류, 지정된 10곳의 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이들 후보지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700헥타르에 달한다. 이는 2025년 상반기 최종 계획안이 중앙 정부에 제출 및 승인 되자마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초기 5년간은 시범 운영기간에 해당된다.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기대효과

다낭 자유무역지대 설립 및 운영은 다낭을 비롯한 베트남 중부 경제성장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업에 특화된 다낭시의 경제구조가 배후의 제조산업시설을 바탕으로 한 물류분야로 확대되면서 다낭시의 경제성장 포트폴리오를 보다 다양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재 북부와 남부에 비하여 부족한 중부의 항만 물동량이 자유무역지대의 운영과 신항만의 건설로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다. 2023년 베트남 항만협회 자료에 따르

며 컨테이너 TEUs를 기준으로 베트남 중부 물동량은 북부의 1/5, 남부의 1/16 수준에 불과하며, 중부지방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항만 물동량이 다낭항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무역지대로 반입된 물품에는 관세 유예 등 각종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해당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진출 및 운영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낭시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 분류, 포장 등의 수출입 상품 처리와 물류 서비스 및 수출 관련 서비스를 촉진하여 다낭 자유무역지대가 베트남 국제 화물 처리의 새로운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존의 산업단지 및 하이테크 단지 등의 산업 클러스터를 신설될 물류단지, 항만, 도로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시사점

빠르면 올해부터 본격적 운영이 시작되는 다낭 자유무역지대는 향후 5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베트남 정부는 운영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성과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단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낭 자유무역지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낭 자유무역지대의 핵심 인프라는 신설될 리엔찌우 항이다. 신항만의 건설은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유무역지대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핵심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다. 리엔찌우 항만 조성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다낭시는 베트남 중부 지역의 주요 물류 거점에서 베트남 국가 전체의 핵심 물류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낭 자유무역지대의 성패는 베트남 내 타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의 추가 설립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한 다양한 피드백 수렴, 그에 따른 정책대응 및 관련 제도 마련은 향후 다른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여러 긍정적인 기대에도 불구하고 운영 초기에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외국인 투자 유치, 수출입 및 국제물류 확대를 위해 1970년대부터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해 온 우리나라의 선례를 보건데, 지역경제발전 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중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자유무역지역(FTZ) 또는 경제자유구역(FEZ), 외국인투자지역(FIZ) 등 명확한 자유무역지대 모델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다낭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 등이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시범적으로 제공한다고 해도, 현재 베트남 중부지역의 열악한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한다면 대형 제조시설 및 물류관련 산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신항 개발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반 인프라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E 모빌리티 시장, 어디까지 왔나?

- 베트남의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시장은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맞물려 최근 빠르게 성장 중
- VinFast가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 선도

베트남의 E 모빌리티 시장별 현황

전기차(EV): 베트남 정부의 탄소 배출 저감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베트남 전기차 시장은 최근 단기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간 전기차 제조업체 및 관련 기업들의 급성장이 두드러졌는데,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인 VinFast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2024년 베트남의 전기차 판매량은 8만8358대 이상으로 지난해 대비 약 3배 증가했으며, 베트남 전체 자동차 시장(49만5668대)의 약 18%를 차지했다. 베트남에서 판매된 전체 차량 통계를 보면 베트남자동차협회(VAMA) 회원사 판매량은 34만142대, 현대는 6만7168대, VinFast 및 TMT Motors는 8만8358대를 기록했는데 이 중 VinFast와 TMT Motors는 100%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 현대, BYD, BMW 등 외국 기업들이 전기차를 판매하고는 있지만 판매량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기 이륜차-전기 오토바이: 베트남에서 이륜차는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며 여전히 가솔린 이륜차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 이륜차의 보급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스탯ISTA(Statista)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전기 이륜차는 가솔린 이륜차의 경제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해 2023년 기준, 베트남에 등록된 전기 이륜차는 약 230만 대에 이른다. 베트남 무역투자부(MoIT)도 최근 전기 오토바이 수요가 연평균 30~35%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시장에서는 여러 제조업체가 다양한 모델 출시,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문 전기 이륜차 브랜드인 Dat Bike, VinFast, Yadea, Selex Motors, Pega뿐만 아니라 Honda, Yamaha 등 전통적인 가솔린 오토바이 제조업체 및 BMW 등 고급 브랜드도 전기 이륜차 시장에 진출해 기회를 모색 중이다.

대중교통의 전동화: 정부 정책에 따라 2025년부터 베트남에 신규로 도입되는 대중버스는 100% 전기 혹은 녹색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신규 도입 택시도 동일하게 규제된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베트남 대중교통의 전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통부 산하 신문인 Giao Thong지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내 전기 택시는 3만 대 이상으로 전체 운영 중인 택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 버스의 도입률은 3% 수준으로 아직 미미한 편이다. 2024년 4월 기준, 베트남 전역의 총 버스 대수는 8746대며 이 중 전기버스는 286대로, 현재 모든 전기 버스는 Vin그룹의 자회사인 VinBus가 운영하고 있다.

전기 충전소 현황

긍정적인 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의 속도나 규모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VinFast가 전국적으로 15만 개 이상의 전기차 및 전기 이륜차 충전 포트를 구축하며 종합적인 충전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VinFast는 2024년 말부터 2027년 중반까지 개인 사용자 대상 배터리 무료 충전, 운송 서비스 차량(택시, 공유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야간 무료 충전 및 주간 충전 요금 50% 할인 정책을 시행하며 전기차 이용을 더욱 장려할 계획이다. 그러나 Vinfast 충전소가 자사 차량에만 제공되고 다른 제조업체 차량에는 개방되지 않고 있어 브랜드 간 충전 호환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베트남 내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Mercedes, Audi, Porsche 등도 공식 대리점에 고속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도시 내에 위치하는 등 접근성이 낮다.

<베트남 전기 충전소 현황>

기업	충전소 현황
Vinfast	베트남 전역에 15만 개 이상 전기차 충전 포트 개발 중
EverCharge	60여 개 충전소 운영
EV One	51개 충전소 운영
Charge+	3개 충전소 운영

[자료: 각 기업 홈페이지]

결과적으로 차종 및 브랜드 간 호환이 가능한 전국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이 베트남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 브랜드의 성공적인 안착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사점 및 진출전략

충전 인프라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오토바이 보급률을 기록하는 나라 중 하나로, 이는 베트남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전기차, 전기 오토바이, 전기 대중교통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베트남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8년까지 100만 대, 2040년에는 350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지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EVgo의 딘득뚜언(Dinh Đức Tuấn) 대표는 KOTRA 하노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에는 전기 오토바이용 기계 및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외 기업이 많아 한국기업이 만약 이 분야에 투자할 경우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전기 모터, ECU, 배터리 등 전자부품 공급에서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전기·전자 및 운송 부문의 한국산 제품이나 한국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의 고품질 부품 공급 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한편, 기술 이전 및 연구개발(R&D) 협력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정부의 E 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려, 이러한 협력은 장기적으로 현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동남아 및 글로벌 시장 확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남아 최대 게임 개발국,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 트렌드와 기회

-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분야에서도 생산거점이자 매력적인 소비시장
- 견고한 시장 수요로 전망 밝아, 현지 수출 및 협업 기회 타진 필요

베트남 모바일 게임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탄탄한 디지털 인구 및 모바일 게임 소비 수요: 베트남 스마트폰 이용자 수는 2029년경에는 9000만 명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게임의 소비와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자당 평균 수익은 이용자 수의 증가와 함께 일정 수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게임시장 전체의 지속적인 수익증가가 예상된다. 최근 베트남은 게임을 비롯한 IT분야에서 제조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한국의 언론이나 기업 커뮤니티에서 베트남 IT 아웃소싱에 대한 기사나 소식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노이, 호치민은 물론 중부 다낭시 등을 거점으로 베트남 정부는 적극적으로 IT 소프트웨어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개발 중이며, 관련 교육 인프라와 기업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이러한 IT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모바일 게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베트남 모바일 게임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기업은?

베트남의 주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로는 Amanotes, VTC Game, VNG Games, SohaGame, Gamota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개발사들의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풍부한 현지 IT인력을 바탕으로 게임을 직접 제작, 운영하는 베트남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글로벌 경제매체인 블룸버그에서는 베트남이 다운로드 수 기준 세계 5위권 모바일 게임 생산국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시사점

현지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베트남 유저들이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캐릭터나 게임 업적을 공유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소셜 기능이 잘 갖춰진 게임을 선호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길드와 파티 시스템을 통해 콘텐츠를 주변 사람 및 복수의 익명의 유저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영어보다는 베트남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베트남 유저들은 동양문화의 요소가 가미돼 현지화가 이뤄진 베트남어 사용 캐릭터와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요소가 포함된 게임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콘텐츠 상품의 경우 제조상품 못지않게 현지화가 매우 중요하다.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이 깊숙히 이해할 수 없는 로컬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베트남이 글로벌 게임 제작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아직 고부가가치 개발 인력은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로컬 문화와 게임개발 능력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현지 인력자원들과 효과적으로 협업한다면 베트남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듀테크로 보는 베트남 교육의 미래동향

- 교육 열풍 속에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의 에듀테크 시장
- 2029년까지 베트남 에듀테크 산업은 6억2733만 달러 규모 예상

베트남 교육시장 현황

베트남 정부는 2019년 교육법을 통해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 분야에 배정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베트남 GDP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지출 규모다. 또한, 2024년 2월 발간된 국제학교 데이터베이스 ISC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국제학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과 비교해 학생 수는 30%, 국제학교의 수는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의 외국어 및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스마트폰 사용자가 84%에 달하는 베트남의 특성상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에듀테크 시장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온라인 대학 교육과 전문 자격증 학습을 포함하는 에듀테크 시장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에듀테크 가운데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분야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것으로 조사된다. 전체 에듀테크 시장의 매출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연간 성장률 12.1%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9년에는 6억2733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에듀테크 관련 정책

베트남 정부는 교육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2022년 베트남 총리실의 결정문 131/QD-TTg를 통해 2030년을 목표로 교육분야 디지털 전환과 정보기술 활용 확대 비전을 선포했으며, 2024년 국가 예산의 15.5%를 교육에 배정하며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30년 교육분야 비전은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과 교육의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및 교육장비 강화, 교육 관리 시스템의 현대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육의 균등한 접근을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사점

베트남의 에듀테크 시장은 경제 성장과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이 교육비에 지출되고 있으며, 국제학교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젊은 인구와 높은 디지털 기술 수용도는 에듀테크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주요 에듀테크 브랜드들의 활발한 투자 유치를 통해 혁신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에듀테크 기업들도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초기 시장 선점이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에서 교육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 A 씨는 KOTRA 호치민 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인구 구조 특성과 증가하는 소득 수준, 디지털 기기 수용도를 언급하며 베트남의 에듀테크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A 씨는 유아 및 미성년자 교육 관련 플랫폼은 언어나 직업 교육 플랫폼보다 경쟁자가 적다고 언급하며 베트남 에듀테크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은 충분한 시장조사 후 사업을 진행할 것을 추천했다.



2024년 베트남 수출입 동향

- 2024년 베트남의 총 교역액은 7,862억 9,000만 달러
-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 7위 수입국, 3위 무역흑자국

베트남 수출입 동향

베트남의 2024년 총 교역액은 약 7862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다. 총수출액은 4055억 3000만 달러(전년 대비 약 14.3% 증가), 총수입액은 3807억6000만 달러(전년 대비 약 16.7% 증가)를 기록했다.

<2021~2024년 베트남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	3,362.5	19	3,718.5	10.6	3,555	-4.4	4,055.3	14.3
수입	3,322.5	26.5	3,606.5	8.4	3,275	-8.9	3,807.6	16.7
무역수지	40	-79.9	112	180	280	150	247.7	-11.5

[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4년 한-베 교역 동향

2024년 한국-베트남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867억6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9.1% 증가한 583억21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전년동기대비 9.6% 증가한 284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여 298억8000만 달러의 무역흑자액을 기록했다. 2024년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 7위 수입국, 3위 무역흑자국이다.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양국 간 교역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2024년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교역 규모도 증가하였다.

시사점

2024년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요 수출국들의 수요 증가와 베트남의 무역 투자 협력 강화에 기인하며 2025년 베트남 무역수지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한-베 교역액은 증가세를 기록하며 양국 간 무역협력이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주요 품목들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지며, 베트남이 한국의 3위 수출국을 차지하는 등 양국 경제의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 회복과 함께 베트남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은 수출 품목의 다각화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교역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시장에 대한 분석과 베트남 경제 성장에 맞춰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양국 간 교역 활성화와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5년 새로 적용되는 베트남 주요 관세법령 변동

- 2025년 베트남 수출 시 검토해야 하는 신규 물품규제 등 발표
- 신규 금지물품 및 신규 규제에 맞춘 수입 필요

국회 결의안에 따른 전자담배 금지품목 지정

결의안 173/2024/QH15을 통과시키며 2025년부터 전자담배의 생산, 거래, 수입, 보관, 운송, 사용을 금지하도록 합의했다. 해당 결의안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시킬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전자담배와 관련된 HS CODE가 대외무역법 시행령의 수입 금지품목으로 추가돼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산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 반덤핑 세율 폐지

결정문 3011/QD-BCT로서,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부과 만료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 21일자 결정(3162/QD-BCT)에 따라 부과된 일부 냉연 스테인리스제품의 반덤핑 부과 조치는 2024년 11월 이후로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

수출세 및 특혜세율 변동

수출세 및 특혜수입관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144/2024/ND-CP)을 발표함에 따라 2024년 12월16일부로 질소비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신규 수출관세가 적용되며 담배 등 일부 품목의 특혜세율(MFN)이 변경되었다.

2025년 부가가치세 감면 규정 연장

결의안 174/2024/QH15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통신, 정보기술, 금속, 조립식 금속으로 만든 제품 등 43/2022/QH15 제3조1.1항 a)에서 명시한 서비스 및 상품군에 대해 8%로 부가가치세를 감경한 시행령(72/2024/ND-CP)을 연장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현재 부가가치세 8%를 적용 받는 물품들은 2025년 6월까지 8%가 지속될 예정이며, 특별한 추가 변동이 없는 한 7월부로는 10%의 부가가치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전기 오토바이 품질 검사규정 개정

베트남 교통부는 최근 전기차 및 전기차 부품 수입 시 적용되는 기술안전 품질 인증절차 등을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개정한 바 있으며, 특히 2025년 1월 1일 시행되는 베트남 교통부 통지(54/2024/TT-BGTVT, 이하 교통부 통지)에서 전기자전거 검사 규정 폐지, 수입 절차 개정 등 다양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기존 전기오토바이와 함께 취급됐던 전기자전거는 비모터 차량으로 분류돼 검사에서 제외된다.



베트남 탄소시장 구축 본격화... 2029년 공식 운영 목표

- 베트남, 2028년까지 탄소거래제 시범 운영 후 2029년 공식 운영 예정
- 관련 법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구축 가속화

베트남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베트남은 2022년 국가결정기여(NDC) 업데이트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Business As Usual) 대비 43.5%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중 15.8%는 자국 노력으로, 나머지 27.7%는 국제 지원을 통해 달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재정적 수단으로 베트남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12월, 베트남 정부는 국제 파트너 그룹(IPG)과 공정한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체결해 155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 지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전력 부문의 구조 전환 가속화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탄소시장 구축을 위한 로드맵 및 실행계획

탄소시장 구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베트남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기업,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재무부가 발표한 탄소시장 이행 로드맵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추진 일정을 제시하며, 국내외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 베트남 탄소시장 내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우선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Greenhouse Gas Emission Quotas)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이행해야 하는 기업 혹은 시설이 법률에 따라 배출가능한 할당량을 의미한다. 이 할당량은 총리가 발행해 기업 및 시설들에 무상 할당 또는 경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된다. 둘째로, 인증 탄소 크레딧(Certified Carbon Credits)은 국내외 프로젝트 등에서 생성·인증된 탄소 크레딧을 말하며 청정개발체제(CDM), 공동크레딧 매커니즘(JCM), 파리 협정 제6조 매커니즘에 따른 크레딧을 포함한다. 이 크레딧은 탄소시장에서 개인, 기업, 기관 간 거래될 수 있다.

<탄소시장 이행 로드맵>

단계	기간	주요내용
준비 단계	2025년 6월까지	법·제도적 기반 및 인프라 구축, 탄소거래소 시범 운영 준비
시범 운영 단계	2025년 6월 ~ 2028년	탄소거래소 시범 운영 개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무상 할당 대상 검토, 탄소크레딧 거래 활성화
공식 운영 단계	2029년 이후	국내 탄소시장 공식 출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부여 대상 산업 및 시설 확대 검토, 국내 시장의 글로벌 연계 가능성 검토 및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 확대 방안 마련

[자료: Decision 232/QD-TTg]

베트남 탄소 크레딧 확보 현황

베트남에서 탄소 크레딧을 확보한 사례로는 우선 전기차 스타트업인 셀렉스모터스(Selex Motors)가 대표적이다. 셀렉스모터스는 유엔개발프로그램(UNDP)와 협력해 전기 오토바이 기업으로서 세계 최초로 국제 기준에 맞춰 탄소 크레딧을 등록했다. 2024년 12월에 검증 절차를 마쳐, 2025년부터 5년간 19만 7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분에 상당하는 탄소 크레딧 판매가 가능하다. 또한 빈그룹 산하 전기차 충전소 기업인 비그린(V-Green)은 대만의 eTreego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에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 전환 및 탄소 크레딧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Gold Standard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에는 72개 그룹이 탄소 크레딧 판매를 위한 등록을 마쳤으며, 이 중 약 40개가 인증까지 완료했다. 인증된 프로젝트는 주로 풍력이나 바이오가스 분야에 집중돼 있다. 베트남의 탄소 크레딧의 잠재적인 분야로는 산림 자원의 활용이 꼽힌다. 베트남은 국토의 약 42%가 삼림으로 덮여 있어 이를 활용해 수백만 개의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현지 매체 VnExpress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은 세계은행에 톤당 5\$의 가격으로 1030만 개의 탄소 크레딧을 성공적으로 판매해, 총 51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 탄소 크레딧의 대부분은 베트남 중북부 지역에서 생성된 것이다.

탄소시장 발전의 리스크, 도전과제

야심찬 목표와 추진 일정을 설정했지만, 베트남의 탄소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친환경 산업도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기업들이 탄소 크레딧을 구매해야 할지 판매해야 할지조차 판단하기 쉽지 않다. 또한 탄소시장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liquidity) 부족과 가격 변동성(price uncertainty)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정책 변동성, 법적 강제력 부족, 시행 지연 등으로 인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VIR (Vietnam Investment Review) 등 현지 언론은 베트남 정부가 기업들이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린 워싱(green-washing)과 감축량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된 크레딧만 거래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탄소시장의 성공 여부는 시장 성숙도, 법적·제도적 정비 수준, 명확한 운영 기준, 그리고 충분한 참여자 확보 여부에 달려 있고, 베트남도 이러한 요소를 제대로 갖춰야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글로벌 시장에서 친환경 공급망 참여 및 탄소 감축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 탄소시장의 발전은 현지 기업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RE1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 규제의 영향권에 놓인 기업들은 베트남 탄소시장의 변화와 운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탄소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제도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기업들은 정부 정책 변화와 조직 개편, 법적 프레임워크 개정이 경영환경과 대응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베트남, OECD 가입 추진과 협력 강화

베트남은 2045년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팜 민 찌(Pham Minh Chinh) 총리는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차총회에서 OECD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가입 의향을 전달. 찌 총리는 OECD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 표준을 충족하고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콜먼 사무총장은 베트남의 역동적인 경제성장과 동남아에서의 입지를 강조하며, 정책 연구와 문제 해결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 현재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OECD 회원국이며,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가입 추진 중. 베트남이 OECD에 가입하면 동남아 최초의 회원국이 되지만, 정식 가입까지는 수년간의 평가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Vietnamplus 24. 5.4]

▶ 베트남 개인예금 증가...예금금리 증가에 기인

베트남 은행권의 개인예금 총액은 2023년 10월 기준으로 6,987조동(약 2,782억 달러)으로, 2년 넘게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기업예금도 전년말 대비 4.63% 증가한 7,157조동(약 2,850억 달러)을 기록하며, 가계와 기업의 총 예금액은 1경 4,000조동(약 5,576억 달러) 초과. 이러한 예금 증가세는 은행권의 수신 경쟁과 예금금리 인상에 기인함. 2025년 1월에는 여러 시중은행이 일제히 예금금리를 인상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6% 안팎에 달하고 일부 은행은 8~9%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음. MB증권은 올해 산업생산 회복과 공공투자 지출 증가로 여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예금금리 인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한편, 중앙은행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여수신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지시하고 있음.

[The Pinnacle Gazette 1.29]

▶ 베트남, 전국 지자체 GRDP 목표 최소 8% 할당

베트남 정부는 올해 각 지자체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 목표를 최소 8%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최소 8% 달성하여 2045년 고소득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하노이와 호치민은 각각 8%와 8.5%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하이퐁, 동나이성, 빈즈엉성 등은 투자리수 성장률 목표를 부여 받았음. 정부는 산업생산, 관광, 소비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 추가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제도 및 정책 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지시. 재정부는 연간 세출에서 정가지출 비중을 60%로 줄이고, 개발·투자 비중을 31%로 늘릴 계획. 공상부는 총수출액 12% 증가와 무역흑자 300억 달러 등의 목표를 설정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공공투자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할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되며, 1월 공공투자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한 35조 4,000억 동 기록.

[Hanoi times 2.6]

▶ 빈패스트, '전기차 등록세' 면제 3년 연장 건의

베트남 전기차 제조사 빈패스트(VinFast)는 전기차 등록세 면제 조치를 2028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 현재 시행 중인 등록세 면제는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유효하며, 종료 후 2년간 등록세는 내연차의 50%로 조정됨. 빈패스트는 전기차 등록세 인하가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 사례 언급. 지난해 빈패스트는 베트남에서 8만 7,000여 대의 신차를 판매하

며 가장 높은 판매 실적 기록. 재정부는 전기차 등록세 50% 지속 감면과 면제안을 총리에게 제출했으며, 1안의 연간 세수 감소 규모는 약 6,270억 동으로 추산됨. 베트남의 자동차 등록세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며, 하노이와 하이퐁의 등록세는 각각 12%와 10%임.

[Vnexpress 2.8]

▶ 삼성베트남, 작년 실적 호조...매출 625억달러 달성

삼성전자의 베트남 사업부는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300조 9,000억 원의 매출과 32조 7,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 달성. 삼성베트남은 625억 달러의 매출과 544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베트남 최대 수출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음. 2008년부터 베트남에 투자하기 시작한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이 232억 달러에 달하며, 4개의 생산법인과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삼성베트남은 현지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1·2차 협력업체 수를 10년 만에 12배 증가시켰음. 최근 삼성베트남 임원진은 총리와의 회담에서 AI와 반도체 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삼성전자는 베트남을 주요 기술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R&D 센터 투자 확대와 현지 지원 산업 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지속할 계획.

[Vietnam Finance 2.13]

▶ 호치민시 올해 분양아파트 10채중 8채가 고급부문

호치민시의 올해 아파트 신규 공급이 1만 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80%는 m²당 분양가 6,500만 동(2,540달러) 이상의 고급 아파트인 것으로 알려짐. 저가 아파트의 공급량은 약 2,000호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시장 수요가 가장 높은 저가 아파트는 전체의 20%에 불과. 교외 지역의 저가 아파트 공급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교통 인프라 확장과 도시화로 인한 인구 분산이 영향을 미쳤음. 지난해 호치민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m²당 8,400만 동(3,280달러)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했으며, 특히 투득(Thu Duc)시의 상승률은 18.3%에 달했음. 부동산컨설팅업체 세빌스베트남(Savills Vietnam)의 지양 후인(Giang Huynh) 이사는 도심과 투득시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저가 아파트의 공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득이 제한적인 근로자와 젊은 가족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호치민시의 주택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조사됨.

[Vnexpress 2.16]

▶ 재무부, 전기차 등록세 면제 조치 2년 연장 방안 추진

베트남 재무부는 전기차 등록세 100% 면제 조치를 2027년 2월까지 2년 연장 추진중. 기존 시행령(10/2022/ND-CP)에서는 2022년 3월~2025년 2월 면제 규정임. 2025년 3월부터 내연차 등록세 50% 수준 적용 예정으로 재무부는 연장안 관련 각계 의견 수렴 중임. 빈패스트는 2028년 2월까지 면제 연장을 요청했으나 재무부는 이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

[Vietnamnet 2.18]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Minh Dan Waste Treatment Project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

2.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기업명 :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Tuyen Quang Province People's Committee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위치 : Minh Dan Ward, Ham Yen Dist., Tuyen Quang Province, Vietnam ▪ 프로젝트 진행상황: Calling for investment ▪ 프로젝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aste type: Municipal solid waste in Tan Yen urban area and communes of Ham Yen District. ➢ Landfill area: 3.5 ha ➢ Capacity: 50 tons/day (2025) and upgrades to 80 tons/day in 2030 ➢ Technology: Waste incineration ➢ The unit price of solid waste treatment must be around VND 500,000/ ton of garbage (price includes VAT) according to the approved Decision of the People's Committee (31/2022/QĐ-UBND) ▪ 세부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paring F/S report: Q3-Q4/2024 ➢ Bidding for investor: Q1-Q2/2025 ➢ Construction: Q2/2025 ➢ COD: Dec. 2025

▶ 미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 한 달간 주요 경제통상 조치 동향(1.20~2.20)

- ◇ 미국 신정부는 1.20일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중: 취임 한 달간 73개 행정명령에 서명
- ◇ 미 정부는 출범 직후 기존 무역 관행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수립을 지시하였으며(~4.1일), 이 외에도 국가별 품목별 관세 조치 계획을 발표하였음.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주요 경제통상 조치 발표사항
- 주요 에너지 관련 조치 사항
- 외교 현황(2.20일 기준)
- 주요 경제통상부문 내각 인사 상원 인준 현황

▶ 미국-인도 정상회담 주요내용과 시사점

- ◇ 美트럼프-인도모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개최 후 공동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
- ◇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 ‘미국-인도 COMPACT for the 21st Century’를 통해 성과 창출 노력하기로 합의
- ◇ 무역·투자, 방위·에너지, 기술·공급망, 인적교류 등서 협력논의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미국-인도 정상회담 개요
- 주요 논의 결과 정리- 무역·투자, 방위·에너지, 기술·공급망, 인적교류
- 언론 반응 및 시사점

▶ 미일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

- ◇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안보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확대 논의
- ◇ 양국은 안보 협력, 첨단기술 개발, 대미 투자 확대, LNG 수입 증대 등 합의
- ◇ 언론은 이번 회담이 미일 동맹 강화와 지역 안보 안정에 기여 했다고 평가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 美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 ◇ 美, 주요 3대 교역국(캐나다·멕시코·중국) 대상으로 관세부과 행정명령 발표(2.1)
- ◇ 캐나다·멕시코는 30일 간 유예, 미국과 중국은 상호 각각 10%씩 추가 관세 발효

[주요내용]: 다운로드([클릭](#))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VKIST,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 협업 기반 마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지난 3일 ‘베트남 VKIST 교류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베트남 대사관과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을 비롯해 베트남 기업 Xuan Cau Holdings, IGD 등 총 8인으로 구성된 베트남 대표단을 초청해 스마트공장 ODA 사업과 양국 교류 증진 및 상호협력을 논의했다.

안광현 단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의 한국 디지털전환 정부 지원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베트남과 공유하고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 추진현황 △국내 스마트공장 적용 및 성과 사례 △한국-베트남 간 스마트제조 분야 협력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베트남의 디지털전환 성공적 수행 지원을 위해 한국의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한·베트남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단은 VKIST와 협의 하에 VKIST 부지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ODA 사업의 지원모델 중 하나인 베트남 데모실 증센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베트남 스마트공장 ODA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구체화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베트남 데모실증센터 구축을 위한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ODA 사업을 위한 현지실사단을 구성, 이달 말 베트남을 찾아 관계기관(베트남 MOST, SATI, 대사관 등) 협의, 현지 조사(기술 및 인프라), 사업설명회(수요발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일보(<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04370>)

베트남 팀코리아협의체 활동 내역은 앞으로도 지면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으로 전파가 필요하신 기관은 코트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유일의 고객맞춤형 에너지 솔루션 기업, 비나텍

김경철 사장

1. Vina Tech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Vina Tech은 1998년에 설립된 친환경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슈퍼커패시터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창립자인 성도경 회장은 베트남과 중국 동북3성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 두 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예견하고, 이 두 곳에 첨단부품 제조기업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두 나라에서 각각 "VI"와 "NA"를 따와 'VINA'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창업이후 2010년 비나텍은 세계 최초로 3.0V 슈퍼커패시터 양산에 성공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립했으며, 지속

적인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대한민국 소재·부품산업 강소기업 100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현재 비나텍은 월 2,000만 개의 중형 슈퍼커패시터를 생산하며 세계 1위 공급업체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막전극접합체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폴리머 알루미늄 커패시터 생산업체, 에너솔을 인수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세 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비나텍은 △우수 인력 양성 △친환경 e-모빌리티 사업 확장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현지 직원들에게 첨단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친환경 에너지 부품을 활용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슈퍼커패시터 응용 제품을 과학 기술 산업에 도입하는 등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나텍은 기술 혁신 뿐만 아니라, 인재 육성과 사회적 책임에도 주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2.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비나텍(주)(VINA Tech)은 친환경 에너지 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제품인 슈퍼커패시터는 월 2,000만 개의 생산 규모를 자랑하며 세계 1위 공급업체로 성장했으며, 뛰어난 에너지 저장 성능과 긴 제품수명을 통해 스마트 미터기, 전기자동차 등 eMobility, 산업용 전자 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 부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비나텍은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막전극접합체(MEA)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였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시장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임체인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나텍은 작년 4월 폴리머 알루미늄 커패시터 전문 기업인 에너솔을 인수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 내 3개의 공장을 운영하며,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기지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써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3. 베트남 사업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베트남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동남아시아의 주요 투자 허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제 성장 배경에는 베트남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2024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7.09%를 기록했고, 올해에도 8%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또한,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미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2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속에서 대체 투자지로서의 매력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와 고속철도, 항만 및 공항 확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베트남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이는 요소입니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며, 우리 비나텍 역시 베트남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4.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비나텍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주한 풀어야 할 과제는, 베트남 고유의 행정 절차와 법률 체계,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지속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거듭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과 규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동성과 미래 지향적인 사업환경은 기업에게 기회이지만 위기(Risk)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비나텍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지 정부 기관 및 관계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신 법률 및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KOTRA의 여러 지원 덕분에 정부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규제 변화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베트남 내 시장 입지를 점차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KOTRA가 제공한 기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을 바탕으로, 비나텍의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체계적인 시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비나텍은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혁신적인 연구개발(R&D)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지 인재 육성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중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비나텍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KOTRA의 도움을 받으며, 베트남 정부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베트남의 발전과 함께 번영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거듭 할 것입니다.

5. 베트남 진출을 준비중인 한국기업에게 조언해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베트남에 진출하는 것은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은 더 이상 저렴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시장이 아니며, 기술적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초격차 기술력과 혁신을 바탕으로 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갖춘 기업이 베트남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트남은 환경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이 소비자와 정부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이에 맞는 기술 혁신을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현지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나텍은 본사에 인재를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현지 인재를 육성하고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기술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나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상생하는 기업이 더욱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비나텍은 언제나 한국 기업들의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신규 진입 기업들과도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휴업 및 프로젝트 일시 중단

법무법인 JP 베트남사무소 전현우 대표변호사

들어가며

베트남 법률은 회사의 청산 외에도 일시 휴업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칼럼에서는 기업의 일시 휴업 신청 절차 및 프로젝트 중단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업 신청 절차

기업법 제200조 및 기업법 시행령 78/2015/ND-CP 제57조에 따르면 기업은 영업의 일시중단(휴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휴업기준일 3영업일 전에 본사소재지, 지사소재지, 대표사무소 소재지 등의 관할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해당 휴업기간이 지나도 휴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연장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총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세금납부의무는 계속되며, 기타 약정된 채무지급의무는 계속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고객, 근로자 등과 체결한 계약이행의무는 계속되므로,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관련 절차

외국투자기업은 투자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기업 운영에 관하여 휴업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프로젝트 이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프로젝트 일정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해야 프로젝트 이행 미준수에 관한 패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투자법 제46조와 제47조는 투자프로젝트의 스케줄 연장 및 프로젝트 중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스케줄 연장의 경우 투자자본금 출자 일정, 건설 일정, 운영 개시 스케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휴업으로 인하여 위 일정 준수가 어려운 경우 프로젝트 스케줄 연장을 통해 이행 미준수에 대한 패널티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프로젝트 이행 일정 미준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행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 회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기에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절차를 더욱 유의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의 경우 명확한 기한 등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투자법 제48조를 살펴보면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중단하는 날로부터 12개월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등록기관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대표자 등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프로젝트 강제 종료를 가능케 한 규정을 살펴보면, 프로젝트의 중단 신청은 12개월 이내로 한정된다 이해됩니다. 프로젝트 종료를 정하고 있는 제48조가 프로젝트 중단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능하다면 프로젝트 연장을 통해 시간을 얻는 방법이 좀 더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베트남 세법 및 세무행정 12탄

동아회계법인 임진용 회계사

들어가는말

안녕하십니까? 동아회계법인 베트남 대표 임진용 회계사입니다. 길고 길었던 구정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구독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번호에서는 지난달에 이어서 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범위란?

지난달에 과세대상소득의 개념과 비과세되는 소득의 종류들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중 급여소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로서 ‘월급’ 내지는 ‘봉급’이라고 부르는 급여명세서를 잘 살펴보면 기본급과 각종 제 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세(한국에서의 갑종근로소득 또는 ‘약칭’ 갑근세)를 공제(즉, 빼주는 행위)하고 다음으로 각종 사회보험(한국에서의 4대보험) 등을 공제한 뒤, 노조비나 사우회 등 각종 공제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한 차인지급액이 각각 구분되어 표시가 되며, 이러한 차인지급액이 바로 월급의 실수령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월급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냥 월급 100만원을 시작으로 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 등을 공제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기본급과 여러가지 수당 등으로 나누는 것일까요? 우선, 기본급의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본급이란 ‘근로자가 1개월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수당의 정의는 월급에서 상기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수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당의 종류는 법인의

성격, 업종별 특성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가 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직급별 또는 직능별로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실제 수당의 종류는 수십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투자법인들의 경우 주로 직급수당, 직책수당, 교육수당, 언어수당, 만근수당, 생산장려금, 식비, 보육지원금, 주택보조금, 자녀학자금, 휴가지원비, 출퇴근지원금(또는 주유비), 유니폼, 통신지원금, 장기근속수당, 해외장기 체류보험료지원 및 초과, 휴일 또는 야간근무수당 등 꽤 다양한 종류의 수당으로 구분하여 각 법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굳이 기본급과 여러가지 수당 등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기본급은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근로계약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1개월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불변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당의 경우 고정금으로 정해졌거나 아니면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수령여부 및 금액의 경중이 변동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 가지의 정의로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로는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과세 및 징수에 대한 범위가 제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과세 및 징수범위가 다르다는 것은, 어떠한 소득의 종류는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대상에는 포함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월호에서도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소득임에는 분명하나 정책적인 이유로 비과세 소득으로 정의를 함에 따라 소득세는 면제를 받게 되지만, 사회보험료의 계산에서는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과 유사한 개념의 '통상임금'이라는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베트남의 '통상임금'에 불포함 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발명포상금, 점심 식대, 출장, 숙박비, 자녀양육비, 직원의 친척이 질병에 걸리거나 결혼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수당, 직원의 생일 및 본인의 부상 등 상해를 입었을 경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노동사회보훈부 시행규칙 Circular No.06/2021/TT-BLDTBXH의 1조 26항) 여기서 이해하셔야 하는 점은 '통상임금'에 불포함 되는 항목들의 특징은 지속 반복적이지 않은 항목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 또는 결혼, 생일을 매월 지속 반복할 수는 없겠지요. 대신, 점심 식대나 자녀양육비 등은 매월 지속 반복되는 일이지는 하나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통상임금에 불포함 시키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한국투자법인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각 권역별로 4단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 중이며 '국가임금위원회(한국의 노사정위원회와 유사)'가 매년 4/4분기에 개최되어 노조, 기업 및 정부측에서 참석하여 차년도 최저임금의 인상여부 및 인상율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급으로 정해진 금액의 변동이 발생하곤 합니다. 수당의 경우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인상율에 따라 인상하는 경우도 있고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으며, 직급수당 및 직책수당 등과 같은 수당 등은 인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이번호에서는 과세대상소득으로서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제 수당 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호에서는 계속해서 급여소득에 포함되는 제 수당 항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베트남 북부 유망 투자지-디엔비엔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9,540km², 베트남의 63개 성/시 중 9위를 차지 ▪ 인구 : 646,182명 ▪ 도시거주 비율 : 15.2%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엔비엔성은 베트남 서북부 지역에 위치한 산악 및 국경 지역으로, 하노이에서 서북쪽으로 504km 떨어져 있음. 현재 북부 산악 지방성 중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있는 성이며, 현재 이 공항은 서북 지역 허브공항으로 운영되고 있음. ▪ 행정 구역 구성: 10개의 현금 행정 단위(8개 현, 1개 군, 1개 시)와 129개의 읍/면/동급 행정 단위(115개 리, 9개 동, 5개 읍)로 이루어짐. 또한 19개의 소수 민족 공동체가 존재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엔비엔성은 라오스, 중국 등 삼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중국 윈난성(성도 : 쿤밍)과 라오스(수도 : 비엔티엔)과 연계가 유리한 곳임.
GRDP 성장률 / 1인당 GDP('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 7.1% ▪ GRDP 총 생산량 : US 5억 8,600만 달러 ▪ 1인당 성GDP : US 1,790달러/년. 2023년에 비해 108.4달러 증가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1억 4,333만 달러 / 총수입액: 2,500만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2.97%), 서비스업(5.96%), 농수산업(3.02%)
산업구조('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22.29%, 서비스업 3(주로 관광/물류) 57.63%, 농수산업 15.63%
노무여건('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52.54%(339,541명)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22.87%
최저임금('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ND3,450,000 = US138 달러(4급지) * 계약상 최저 임금에 관한 제 74/2024/ND-CP 의결서(2024년 7월 1일) 따름 * US 1달러 = VND25,400
외국인투자 ('23.12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 1개 프로젝트(중국) ▪ 한국투자: 없음

투자환경



디엔비엔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공항)

- ✓ 디엔비엔성은 위치는 서부내륙에 치우쳐 있으나, 베트남 북부 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역 허브공항(디엔비엔푸 공항)을 가지고 있으며, 베트남항공(국내선)을 통해 ‘하노이/호치민’과 주당 11편의 직항편으로 연결되어 있음.

(도로)

- ✓ 중국과 라오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라오스와 360km, 중국과 38.5km), 베트남-라오스 국경에는 후이 푸억(Huoi Puoc)과 떠이짱(Tay Trang) 두 개의 국경검문소가 있고, 추가로 세 개의 간이 국경검문소가 추가 개방 예정. 베트남-중국 국경에서는 아파차이(A Pa Chai)-롱푸(Long Phu) 국경검문소가 있는데, 양국 간 공식 국경검문소로 승격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이들 국경검문소가 추가 개방/승격되면 베트남 서북부 지역과 라오스 북부 및 중국 서남부 지역 간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 동서 방향의 주요 도로 축(국도 6호선-QL6, 279호선-QL279) 및 서북 지역 순환축(국도 6호선-QL6, 12호선-QL12), 국도 4D호선(QL4D), 국도 4H호선(QL4H) 등이 지남.

(수로)

- ✓ 디엔비엔성을 통과하는 ‘다강’수로는 화빈-선라-라이쩌우(Hoa Binh – Son La – Lai Chau) 호수연계 수로 노선에 속하며, 3급 수로로 계획되어 있음.
- ✓ 수상 항구 : 400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1,000톤 규모의 화물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내륙항구들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중 라이쩌우 호수 항구는 연간 700톤, 기타 항구는 연간 300톤 규모로 운영됨.

➤ 관광

- ✓ 디엔비엔은 특히 문화·역사 분야에서 높은 관광 잠재력을 가진 성임. 가장 유명한 명소로 디엔비엔푸(Dien Bien Phu) 전승유적지가 있으며, 주요 장소로 디엔비엔푸 전투 지휘본부, 므엉팡(Muong Phang), 힘람(Him Lam), 반게오(Ban Keo), 독립(Doc Lap) 요새, A1, C1, D1, E1 고지, 프랑스군 중심 요새 및 드 카스트리(De Castries) 지하 벙커 등이 있음.



드 카스트리(De Castries) 지하 벙커



디엔비엔푸 역사박물관



디엔비엔푸 전승 기념 동상

▶ 천연자원

(광물자원)

- ✓ 다양한 종류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광물로는 무연탄, 석회석, 흑석, 화강암, 철광석, 유색금속 및 광천수 등이 성 전역에 골고루 분포

(산림)

- ✓ 산악지역에 위치한 디엔비엔성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산림 면적은 350,854.79헥타르로, 전체 농업산림용지의 48.46%를 차지함. 그중에서 생산림은 30.95%, 방호림은 55.31%, 특수용림은 13.74%를 차지하고 있음.

(에너지 개발의 잠재력)

- ✓ 수력 :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과 다강, 마강, 메콩강 등 세 개와 연결되는 지역임. 특히, 다강과 남룽강 계통의 강은 수력 발전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함. 현재 이 성에는 총 발전 용량 279.3MW 규모의 수력 20개의 발전소가 운영됨.
- ✓ 태양광 : 디엔비엔성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일일 태양복사량(4.5~4.7 kWh/m²/일)을 보유한 지역임. 이는 태양광 에너지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 됨.
- ✓ 풍력 : 디엔비엔성은 서북-동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산맥들로 형성된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음. 지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낮아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점차 기울어지는 특징을 가짐.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디엔비엔성에는 풍속이 안정적이고 풍력 발전에 적합한 지역들이 존재함.
- ✓ 이렇게 디엔비엔성 에너지 개발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수준은 미미.

(수자원)

- ✓ 디엔비엔은 베트남의 3대 강인 다강, 마강, 메콩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 다강 : 디엔비엔성 북부에 위치한 다강은 중국 운남성에서 발원하여 라이쩌우성의 므엥테(Muong Te)를 거쳐, 므엥라이(Muong Lay) 면과 뚜언자오(Tuan Giao)를 지나 선라성으로 흘러가며, 총 유역면적은 약 5,300km²로, 성 전체 면적의 55%를 차지함.
- ✓ 강과 하천이 많고, 물 공급이 비교적 풍부하여 10개 이상의 호수와 1,000개 이상의 하천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이는 현재 디엔비엔성이 개발 및 활용하고 있는 주요 수자원임.
- ✓ 높고 가파른 지형, 많은 폭포와 풍부한 유량에도 불구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유량 감소로 인해 건기에는 수자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경제 개발 방향

- ✓ 현재 산업단지나 경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총 16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임. 그 중 3개의 산업 클러스터는 세부 계획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인프라 건설 준비 단계에서 관련 절차와 프로세스가 진행 중.

➤ 투자 인센티브

- ✓ 디엔비엔성은 극도로 어려운 사회경제적 조건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2020년 투자법에 따라 디엔비엔성 투자 시, 최고 수준의 투자 우대 및 지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인센티브 내용)

- ✓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 신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의 4년 면제 및 향후 9년간 50% 감면, 처음 15년 동안의 세율 10%를 적용함
- ✓ 전체 임대기간 토지 임대료 면제(정부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특별 투자유치 분야의 프로젝트
 - 관할 국가기관이 승인한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 국가가 토지를 임대한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 지역의 인프라를 건설 및 운영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다시 임대한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 지역의 근로자를 위한 주택 건설 투자 프로젝트
 - 공단, 산업단지, 수출가공 지역 등 공용 인프라 시설 건설용 토지
 - 항공서비스 시설 건설 및 공사용 토지를 제외한 항공시설 및 공사용 토지
 - 상수도 공사용 토지; 수자원 개발 및 처리 작업, 상수도 파이프라인 시공 및 상수도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사무소 및 관리시설, 공장, 장비 창고)
- ✓ 일정 기간 동안 토지임대료 면제(정부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토지 임대 또는 수면 임대 결정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관할 당국이 프로젝트에 따라 기본 건설 기간 중 토지 임대료, 수면 임대료가 면제됨. 이 기본 건설 기간이 지난 후에도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이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가 추가 면제:
 - 디엔비엔성에 위치한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11년;
 - 디엔비엔성에 투자된 투자유치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15년

(추가 지원 사항)

- ✓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고품질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촉진함. 또한, 대규모 투자자 및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정책도 운영하고 있음.

- ✓ 기술 이전 지원, 인력 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투자 지원, 투자 신용 지원, 부지정리 지원(토지 수용, 보상,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부지정리 후 토지 제공 또는 임대)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제공됨.

외국인 투자현황

- ✓ 총 누적투자액(2022년 12월 현재) : 700억 동(2,750만 달러), 총 프로젝트 수 : 1개.
- 디엔비엔현 헤무엉리(He Muong) 위치한 타피오카 전분 가공 공장 프로젝트

공단현황

- ✓ 현재까지 산업단지는 없지만, 총 16개의 산업 클러스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1개 산업 클러스터는 이미 디엔비엔성 인민위원회의 설립 결정을 받은 상태임.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	연락처/이메일
디엔비엔성 기획투자청	Mr. Nguyen Phi Song 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 21 5382 9275▪ Website: http://dienbiendpi.gov.vn
디엔비엔성 투자촉진센터	Mr. Hoang Anh Tuan 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 21 5383 8689.▪ Email: ipcdienbien@gmail.com



베트남 바이오의료 시장 진출 가이드북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베트남 바이오의료 시장개요
2. 베트남 내 수입 및 판매 인허가
3. 베트남 진출 절차
4. 참고사항



반려동물 연관산업 맞춤형 정보조사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요약
2. 시장규모
3. 시장트렌드
4. 유통채널
5. 진입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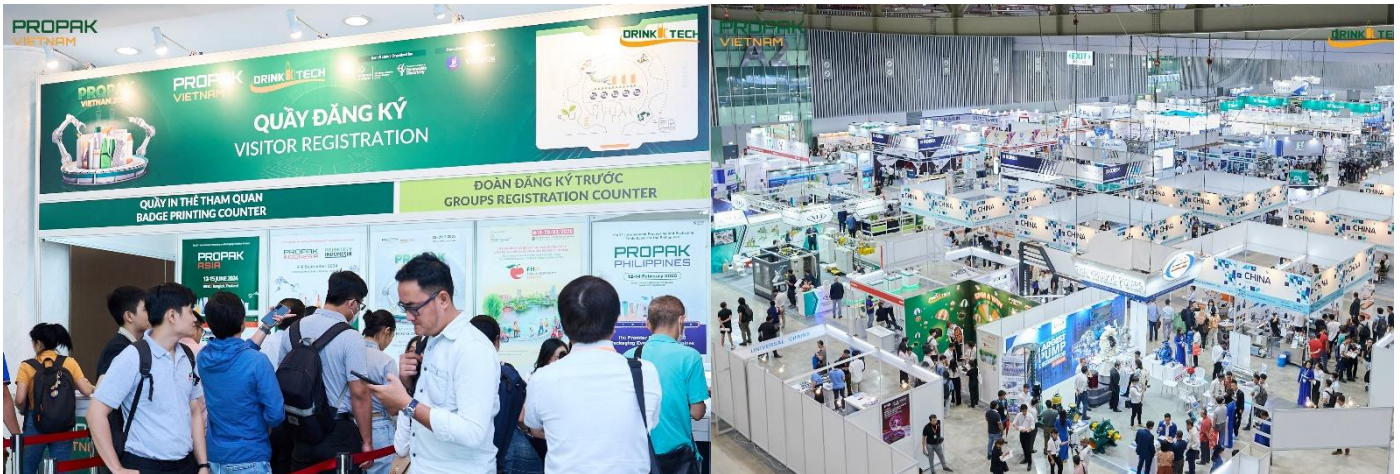
2025년 AIoT서비스·제품 및 기업편람

[클릭시 해당 보고서로 이동합니다.](#)

1. 요약
2. 시장규모
3. 시장트렌드
4. 유통채널
5. 진입장벽

2025 베트남 호치민 국제 가공,포장 전시회

전시회명	2025 베트남 호치민 국제 가공,포장 전시회 [ProPak] The 18th International Processing and Packaging Exhibition
개요	본 전시회는 2005년 처음 개최되었으며, 매년 개최되는 국제 가공 및 포장 전시회임. 2025년 제 18회를 맞이 하였으며 가공 & 포장 기계 및 제품 등이 전시됨. 국제 컨퍼런스,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와 2024년도부터 Drink tech와 공동 개최하였으며 음료 산업 기술, 장비 및 솔루션 제공.
개최기간	2025.03.18 - 2025.03.20
개최장소	SECC(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개최규모	15,000sqm(m2)
웹사이트	propakvietnam.com
산업분야	식품&음료, 생활용품&가구, 기계&장비, 물류&운송
전시품목	가공 및 포장 기계 및 제품 등
주최자	Informa Markets +84-28-3622-2588 / propakvietnam@informa.com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5. 1.31기준 누계		2025. 1. 1 ~ 1. 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10,128	92,117.89	30	32.06	1,254.68
싱가포르	3,951	84,136.85	39	372.25	1,244.92
일본	5,512	78,280.93	21	52.12	599.09
대만	3,279	41,028.45	18	41.04	138.81
홍콩	2,836	38,811.76	32	103.62	161.05
중국	5,195	31,261.98	85	380.26	489.87
버진아일랜드(영)	929	23,893.04	4	13.63	101.91
네덜란드	457	14,958.99	2	0.45	4.64
태국	757	14,355.24	1	28	19.38
말레이시아	768	13,024.48	8	3.49	68.7
미국	1,429	11,862.55	5	98.39	-52.3
기타	7,031	61,662.91	37	161.52	304.04
전체 합계	42,272	505,395.06	282	1,286.84	4,334.7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5. 1. 31 기준 누계		2025. 1. 1 ~ 1. 31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7,962	310,420.74	119	869.65	3,091.22
2	부동산 경영	1,224	73,999.55	9	248.53	1,017.08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97	41,927.58	-	-	-
4	호텔, 외식서비스	1,010	13,842.62	7	9.75	13.63
5	건설	8,168	12,088.83	84	46.42	72.43
6	도소매, 유지보수	1,849	10,949.22	5	0.72	10.57
7	물류운수	1,203	6,637.99	4	30.43	38.66
8	과학기술, 전문활동	4,829	5,852.33	31	8.5	98.82
9	정보통신	3,130	5,145.11	10	0.69	-83.87
10	채광	107	4,870.39	-	-	0.01
11	교육, 양성	710	4,634.43	3	0.47	0.19
12	농, 임, 수산	537	3,857.44	-	-	-4.53
13	예술 오락	152	3,171.60	1	0.16	0.16
14	용수 공급, 폐기물 처리	89	3,227.58	3	70.58	73.8
15	의료와 사회복지	159	1,766.90	-	-	0.19
16	행정, 지원 서비스	682	1,124.85	6	0.94	2.46
17	금융, 은행, 보험	101	932.54	-	-	3.96
18	기타 서비스	157	934.72	-	-	-
19	가구내 고용활동	6	10.64	-	-	-
	합계	42,272	505,395.06	282	1,286.84	4,334.7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증감율%)

구분	2022	2023	2024	2025.1
수출	3,713.00	3,546	4,055	331(-4.0)
수입	3,589.00	3,263	3,807	300(-2.6)
무역수지	124.00	280.00	247.00	31.3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7,994.00	52,379.00	53,891.00	4,832(-13.2)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55,536.00	57,336.00	72,584.00	6,053(+13.3)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751.00	43,128.00	52,191.00	3,862(-4.0)
섬유/직물제품	37,566.00	33,329.00	37,036.00	3,189(+1.8)
신발류	23,895.00	20,237.00	22,871.00	1,898(-3.7)
원목 및 목제품	16,011.00	13,467.00	16,282.00	1,418(-3.7)
철강제품	7,993.00	3,973.00	4,594.00	438(+14.1)
수송수단 및 부품	11,988.00	14,157.00	15,066.00	1,194(-10.2)
수산물	10,923.00	8,971.00	10,040.00	773(+3.5)
원사(Yarn)	4,713.00	4,355.00	4,407.00	301(-19.5)
기타	98,934.00	103,339.00	116,569.00	9,230.00
합계	371,304.00	354,671.00	405,531.00	33,188.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2	2023	2024	2025.1
전자제품 및 컴퓨터	81,884.00	87,965.00	107,053.00	9,733(+13.8)
기계/플랜트 및 부품	45,192.00	41,579.00	48,887.00	3,993(+0.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21,126.00	8,749.00	10,403.00	856(-3.8)
의류(원단)	14,706.00	13,016.00	14,905.00	1,080(-7.9)
플라스틱 원료	12,387.00	9,755.00	11,780.00	871(-5.0)
각종 철강	11,920.00	10,425.00	12,583.00	691(-34.7)
기타 비금속	9,253.00	7,626.00	9,554.00	749(+4.1)
플라스틱 제품	8,119.00	7,508.00	8,853.00	679(-8.0)
화학제품	9,144.00	7,605.00	7,735.00	541(-19.0)
화학물질	8,747.00	7,726.00	8,286.00	540(-20.3)
기타	136,423.00	124,419.00	140,724.00	10,327.00
합계	358,901.00	326,373.00	380,763.00	30,060.0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
1	미국	96,293	109,388	97,020	119,501	10,498
2	중국	56,009	57,702	61,207	61,211	3,647
3	한국	21,945	24,293	23,498	25,619	2,202
4	일본	20,128	24,232	23,314	24,608	2,148
5	홍콩	11,996	10,936	9,631	12,423	864
6	네덜란드	7,686	10,430	10,241	12,993	1,046
7	독일	7,286	8,968	7,400	7,934	863
8	인도	6,259	7,961	8,498	9,064	838
9	태국	6,161	7,476	7,192	7,782	643
10	영국	5,765	6,065	6,345	7,543	713
	기타	96,782	103,853	100,325	116,853	9,726
	합계	336,310	371,304	354,671	405,531	33,18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21	2022	2023	2024	2025.1
1	중국	109,874	117,866	110,644	114,020	12,046
2	한국	56,155	62,088	52,511	55,925	4,197
3	대만	20,772	22,631	18,421	22,741	2,193
4	일본	22,648	23,373	21,638	21,588	1,664
5	미국	15,270	14,470	13,822	15,102	1,156
6	태국	12,564	14,092	11,797	12,447	764
7	오스트레일리아	7,946	10,144	8,533	7,592	571
8	말레이시아	8,148	9,124	7,809	9,133	654
9	인도네시아	7,587	9,641	8,728	10,527	690
10	인도	6,950	7,086	5,864	5,829	469
	기타	64,320	68,386	66,606	105,859	5,656
	합계	332,234	358,901	326,373	380,763	30,06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율%)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1
수출	56,729(+16.9)	60,972(+7.5)	53,479(-12.3)	58,321(+9.1)	4,359(+4.0)
수입	23,965(+16.5)	26,726(+11.5)	25,941(-2.9)	28,440(+9.6)	2,561(-3.5)
무역수지	32,763	34,246	27,550	29,880	1,798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1
반도체	14,026(22)	16,240(15.8)	12,729(-21.6)	18,039(+41.7)	1,740(+45.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050(26.1)	12,527(4.0)	12,350(-1.4)	11,227(-9.1)	579(-13.3)
석유제품	1,157(-3.2)	3,733(222.3)	3,327(-10.8)	2,731(-17.7)	165(-26.2)
무선통신기기	3,315(-4.2)	2,358(-29.2)	2,166(-8.1)	2,511(+15.9)	194(-16.8)
합성수지	2,415(49.5)	2,581(6.9)	2,001(-22.5)	2,333(+16.8)	182(-4.3)
기구 부품	2,405(7.3)	2,194(-8.8)	1,861(-15.1)	1,772(-4.8)	135(-10.9)
플라스틱 제품	1,174(5.3)	1,067(-9.2)	1,021(-4.2)	1,055(+3.4)	76(-9.3)
철강판	1,267(20.4)	1,069(-15.6)	887(-17.0)	994(+12.0)	71(+6.6)
기타기계류	957(43.0)	793(-17.1)	801(+1.0)	664(-17.0)	36(-45.0)
계측제어분석기	717(4.5)	815(13.6)	734(-9.9)	593(-19.1)	39(-15.5)
기타	17,039	17,242	15,612	16,402	1,142
합계	56,729(16.9)	60,972(7.5)	53,489(-12.3)	58,321(+9.1)	4,359(+4.0)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율%)

품목명	2021	2022	2023	2024	2025.1
무선통신기기	5,579(12)	5,986(7.3)	4,543(-24.1)	4,678(+3.0)	332(-34.9)
의류	3,393(7.9)	3,840(13.2)	3,542(-7.7)	3,593(+1.4)	327(-2.5)
컴퓨터	1,659(30.6)	1,948(19.1)	2,075(+6.6)	2,383(+14.9)	267(-28.5)
반도체	750(33.8)	787(5.0)	2,053(+160.9)	2,976(+45.0)	400(+85.4)
산업용 전기기기	725(26.2)	970(33.8)	1,396(+44.0)	1,699(+21.7)	146(+8.6)
신변잡화	984(-4.4)	1,250(27.2)	1,252(+0.1)	1,221(-2.5)	127(+13.8)
목재류	755(19.5)	942(24.8)	722(-23.3)	681(-5.7)	61(-4.9)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76(-14.7)	783(-10.5)	657(-15.9)	598(-9.1)	49(+77.2)
기구부품	624(29.6)	654(4.8)	571(-12.7)	654(-14.6)	57(+22.7)
영상기기	426(8.9)	441(3.6)	409(-7.2)	414(+1.2)	30(-16.0)
기타	8,161	9,103	8,718	9,543	765
합계	23,966(16.5)	26,726(11.5)	25,938(-2.9)	28,440(+9.6)	2,561(-3.5)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3~2024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GDP증가율	2023년(연간)	%	7.09	5.05	2.9	3.8	1.9	5.6	
	2024년 3Q	%	7.43	4.95	5.4	5.3	2.5	5.2	
	2024년 4Q	%	7.55	5.02	4.3	4.8	2.5	5.2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N/A	N/A	125.9	127.3	97.5	N/A
		2024년 11월	-	N/A	N/A	130.1	136.5	93.6	N/A
		2024년 12월	-	N/A	N/A	140.5	136	90.2	N/A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3년(연간)	-	N/A	N/A	N/A	47.7	51.8	51.5
		2024년 11월	-	50.8	49.6	51	49.2	50.2	53.8
		2024년 12월	-	49.8	51.2	51.1	48.6	51.4	54.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3년(연간)	-	N/A	N/A	113.6	N/A	56.7	N/A
		2024년 11월	-	N/A	125.9	116.8	N/A	56.9	N/A
		2024년 12월	-	N/A	127.7	117.2	N/A	57.9	N/A
	소매판매	2023년(연간)	-	9.6	N/A	N/A	N/A	N/A	4.5
		2024년 11월	-	8.8	0.9	N/A	N/A	N/A	1.4
		2024년 12월	-	9.3	1.8	N/A	N/A	N/A	1.5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3년(연간)	%	3.25	N/A	4.8	N/A	N/A	7.9
		2024년 11월	%	2.77	1.55	1.6	1.8	N/A	2.5
		2024년 12월	%	2.94	1.57	1.6	1.7	N/A	2.9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3년(연간)	%	N/A	N/A	N/A	10.9	N/A	N/A
		2024년 11월	%	N/A	N/A	N/A	N/A	N/A	N/A
		2024년 12월	%	N/A	N/A	N/A	N/A	N/A	N/A
고용	실업률	2023년(연간)	%	2.28	N/A	1.9	3.4	1	3.1
		2024년 3Q	%	2.24	N/A	1.9	3.2	1	3.2
		2024년 4Q	%	2.22	N/A	1.9	3.1	0.9	3.1
무역	수출증가율	2023년(연간)	%	△4.4	△11.3	△10.1	△8.0	△1.0	△3.4
		2024년 11월	%	8.2	9.1	10.7	4.1	8.2	△8.7
		2024년 12월	%	12.8	4.8	2.9	16.9	8.7	△2.2
	수입증가율	2023년(연간)	%	△8.9	△6.6	△13.4	△6.4	△3.8	4.1
		2024년 11월	%	9.8	△0.01	7	1.6	0.9	△4.9
		2024년 12월	%	19.2	11.1	8.3	5.6	14.9	△1.7

[자료원]

-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MIER, S&P
 - (태국) 산업경제실(OIE), 태국중앙은행(BOT), 태국상공회의소대학교(UTCC), 태국상무부(MOC), 태국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 전망치는 *표시

「변화하는 아세안에서 찾는 비즈니스 돌파구」 웨비나 참가 신청 안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급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새로운 기회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변화하는 아세안에서 찾는 비즈니스 돌파구’ 웨비나를 3월 11일에 개최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아세안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관심 기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2025.3.11.(화) 10:30~12:00 / 온라인 Zoom * 참가자 대상 접속 링크 개별 송부 예정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KOTRA		
참가대상	아세안 진출 관심 기업인 약 50명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30~10:45(15')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와 KOTRA 지원사업	KOTRA 지역통상조사실
	10:45~11:10(25')	인구구조의 변화 대응, 의료·바이오 진출 확대 방안(가제)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11:10~11:35(25')	아세안 디지털 전환과 우리 기업의 기회(가제)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11:35~12:00(25')	한류 4.0 시대, 아세안 소비재 진출전략(가제)	KOTRA 방콕 무역관
	* 상기 프로그램 시간·내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KOTRA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 신청 (참가비 없음) * 홈페이지(www.kotra.or.kr) → 상단 메뉴 『사업신청』 클릭 ** Zoom 접속 링크는 참가 신청자에게 추후 안내 예정		
신청기한	2025.3.7.(금)		
문의처	KOTRA 아시아중아팀 (02-3460-3232, 7674)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NEWS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인도
비즈니스 협력센터

PARTNERSHIP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 +84 24-3946-0511 ✉ soorin@kotra.or.kr < 저작권자 ©KOTRA >